

미국거주 경험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여성의 의복 행동\*  
Korean Women's Clothing Behaviors Observed by the Korean Who Has  
Lived in the U. S. A.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부교수 최 선 형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강 사 오 현 주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Sunhyung Choi*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extile Product Design & Marketing  
*Lecturer : Hyunjoo Oh*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 point out Korean women's clothing behaviors as seen by the Korean who has lived in the U. S. A. (2) identify cultural and social factors to influence on Korean women's clothing behaviors (3) suggest directions for desirable change in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s of Korean women.

Verbatim texts of 16 interviews concerning Korean women's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fashion in Korea and the U. S. are interpre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Korea, the changes in fashion are not only distinct but also faster than those in America.
- 2) Korean women have a tendency to conform in the way they dress themselves, while the women in the U. S. A. put emphasis on the individuality rather than the current fashion.
- 3) When they go shopping, Korean women take a great note of what the brands represent, but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ake the neatness, easeness of cleaning and practicality into consideration.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4) In Korea, the clothing behaviors are influenced by the rapid social changes, its internalization trend,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the pressure to conform according to the collectivism.

주제어(Key Words):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s), 한국 여성(korean women)

## I. 서론

한국의 의복 소비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소득 증가로 생겨난 거대한 소비세력으로 인해 의복의 과소비 현상을 보여왔다. 90년대에는 1997년의 IMF로 인해 의복 소비가 주춤했지만 이후 여전히 의복에 있어 유명한류상표나 고가상품 등의 과시적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유명상표인 나이키 운동화의 70% 구매율, TV홈쇼핑에서의 천만원 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밍크코트나 보석의 높은 판매율, 일부 여대생들 사이의 값비싼 외제브랜드 선호 열풍, 세계 패션 명품의 한국행 러시 그리고 명품의 복제품 시장의 확산 등이다.

이와같이 한국여성들의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넘치는 의복의 과소비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과시적 의복소비현상은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심리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복행동으로 이어진다.

의복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소비나 과시적 소비의 원인은 소득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 외래문화 도입에 의한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 의한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타인중심적인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 풍요에 따른 소비문화의 확산은 의복소비를 부추기게 되었고, 사회적 기회증가는 각 개인이 의복을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더구나 한국은 근대화라 불리는 사회변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회구성원들은 관념적으로는 개인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실제 행위양식에서는 서열성을 인정하는 권위주의적인 규범에 더 가깝게 행동하는 등 가치와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유행동조현상을 보이며 타인을 의식한 유명상표선호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들의 의복행동에서 획일적인 유행동조 현상과 유명상표선호 등 타인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여성들이 의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여성들의 의복 행동에 있어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재호(1994)는 우리나라민성 중에서 시정되어야 할 행동특성들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인관찰자료에 바탕을 두었으며, 임희섭(1995)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요소와 그렇지 못한 가치요소를 제시하면서 외래문화에서 윤리적 타락과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말고, 합리적인 생활태도, 개인의 존중, 준법성 등의 바람직한 요소를 수용해야 하며, 전통문화에서는 사대주의, 권위주의, 비합리적이고 방식, 신분의식 대신 상부상조나 예의범절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물론 문화에 있어 옳고 그른 문화는 없으나 위의 결과들로 미루어 근대화가 이미 이루어진 외래문화에서의 의복행동과 가치관을 준거틀로 하여 근대화과정에서 있는 한국에서의 의복행동의 특성을 조사한다면 한국여성의 의복행동의 특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의생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왔고 인적 교류가 많은 미국을 준거틀로 하여 미국인들의 의복행동과 한국여성의 의복행동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의복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복행동을 탐색하고, 국가간 의복행동의 차이와 그 원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양적인 연구보다는 질적인 연구가 적합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면접법에 의해 문자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Hofstede(1996)가 제시한 국가간 문화차이 변인들 중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불확실성회피경향, 유교문화와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인 실용주의 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양분하는 관점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를 든다(한규석, 1991, Triandis, 1989). 한국은 흔히 일본과 중국과 함께 대표되는 집단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미국은 개인주의 국가로 대표된다(Hofstede, 1996). 개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핵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며 그들의 개인적 정체인 '나'는 타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내적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생활윤리와 규범은 개인 중심이라기 보다는 가족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나'라는 감정보다 '우리들'이라는 감정이 우선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은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아를 바탕으로 한 양심보다 오히려 외부의 눈, 타인의 평가, 사회의 규제, 즉 동조압력을 강하게 의식한다고 본다(김대환, 1979). 즉 집단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로 개인의 목적보다 집단과의 조화, 집단원들의 의견에 더 가치를 두며, 개인주의 사회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개인의 자립, 경쟁, 성취,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Hui and Triandis, 1986).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입된 물질주의 성향은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집단주의 가치지향에서 개인주의 가치지향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인다(임희섭, 1995).

#### 2)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수용문화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되며, 불안이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관해 막연하게 느끼거나 걱정하는 상태'이다. Hofstede(1996)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은 나라는 불안수준이 높아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므로 표현적인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마다 바쁘고 안절부절 못 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약한 나라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격성과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혹시나 하는 가능성의 폭을 보다 넓게 그리고 기꺼이 허용해 주는 성향을 보이며,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규범이 느슨하고 아이들은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도록 배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불확실성 회피정도의 차이는 의복 규범이나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3) 유교와 실용주의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조선시대의 유교가 한국인의 성격 내지는 국민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 사실이다(차재호, 1994). 유교에서 특히 상하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복종을 강조하는 점은 곧 권위주의적 성격과 연결되는데, 한국의 전통적 가치지향으로서의 권위주의는 인간관계에서의 서열성의 강조로 나타난다(임희섭, 1996). 유교가 갖는 특징을 보면, 1)사회 안정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한다. 2)모든 사람의 체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실행한다. 3)타인에 대한 덕있는 행동이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우한다. 그리고 4)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Hofstede, 1996). 이들 중 불평등한 관계는 지위에 의한 인간관계의 서열정립과 이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불평등한 관계쌍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인간의 서열정립에만 관심을 두지 그에 필요한 쌍방의 의무와 상호보완적 의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우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 등의 원리는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적 철학은 실용주의로, 이는 계몽운동의 여파로 나타나게 되었다(태혜숙 1997). 계몽운동은 권위보다는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적 탐구를 권장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합리적 실용주의를 발전시켰다. 미국인의 생활양식이 경험주의적인 영국인의 기질에서 영향을 받았고, 험난한 미개척지에서의 생활에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형성된 생활양식은 자연적으로 프래그머틱한 것, 즉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우선하거나 존중하는 양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이보행 등, 1986).

## 2. 의복행동

한국과 미국에 있어 다를 것을 예측되는 변인들로 유행현상과 의복동조성과 개성, 그리고 의복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유행

Blumer(1969)에 의하면 유행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집합적으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이며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사회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심 메커니즘이다. 유행은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는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 사회내부의 근대화의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새로 출현하는 가치관, 성역할의 변화를 반영하며 새로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유행변화는 유행주기가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유행변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는 원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계층의 모호화, 그리

고 정보의 빠른 흐름으로 들 수 있다(Davis, 1992). Roach 등(1973)은 사회형태 분류에 따라 유행현상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라 미국을 고도로 현대화된 대량사회로, 한국은 도시산업사회로 볼 때, 한국은 미국에 비해 부와 사회적 기회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로 유행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진 상태이므로 유행변화속도나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고 예측된다.

### 2) 의복동조성과 개성

Flügel(1930)은 동조성과 개성을 '유행의 패러독스'라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유행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유행이란 타인과 구별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의복스타일을 시도하면, 그것을 추종하려는 다수의 대중이 동조하면서 성립되는 이유이다.

동조성이란 실제의 혹은 가상의 집단의 압력에 근거하여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이며, 의복 동조성은 의복규범을 받아들이거나 규범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는 성격 연령, 성별 그리고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의복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며(정미실, 1991), 다른 한편으로 자제력이 강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와 선호에 민감한 타인지향형의 성향을 갖는다(Kaiser, 1990). 개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성으로, 개성적인 착용자는 규범적 체제의 한계 내에서 행동하면서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특징을 의복을 통해 나타낸다. 즉 극단적인 형태로 일탈을 나타내지 않는 한 사실상 창조성에 대해 칭찬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의복행동을 한다(Evance와 Blythe, 1994).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속집단과 같은 스타일을 따르면서 동시에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적 지향성과 타인 지향성들 모두 가짐으로 이중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동조성과 개성에 비중을 두는 정도는 개인이나 소속한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Kaiser, 1990). 한국인

의 의복행동에 있어 동조성과 개성표출을 보면,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로 개인은 남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외적동기에 의해 자아가 통제·관리되기 때문에(external focus of control), 의복선택·착용 시 항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을 의식하는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형태를 더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본다.

### 3) 의복평가기준

의복 평가기준이란 의류상품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되는 상품특성이다. 제품평가 단서는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성능 등의 내재적 단서와 제품의 가격, 상표, 상점 등의 외재적 단서가 있다. 의복 평가기준에 있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제품자체가 갖는 내재적 속성으로의 유행과 외재적 단서인 상표이다. Kim등(1982)은 한국이민자들은 백인들보다 내셔널브랜드를 선호하고, Ho(1991)는 아시아계 미국인학생은 백인학생보다 상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Lee와 Leslie(1993)에 의하면, 자켓과 드레스 구매 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복평가기준을 비교한 결과, 미국여대생들의 유행에 대한 점수가 높고, 한국 여대생들은 상표명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인의 경우 내적 사고나 느낌에 관심이 높은 경우 상표와 같은 외적 구매기준을 중시하지 않으나 한국여성은 내적 사고에 관계없이 상표를 중요시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내적 사고의 깊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모두 상표명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여대생들의 상표가 주는 지위상징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미국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여성들의 의복행동을 탐색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 1. 질적 연구방법의 선정

사회과학의 큰 두 가지 흐름은 실증주의연구과 자연주의 연구로 실증주의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자연주의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은 이론이나 법칙에 따라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연역적 방법과 양적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류학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양적 연구로 유의한 결과들을 산출하여 왔다. 그러나 양적 연구방법으로 의복이 이념, 상징, 또는 문화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연구주제는 제한된 변인의 수와 평균치 산출로 인한 고유치의 특성 상실로 그 결과 도출에 한계가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정인희, 1998, 김현식, 2000).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수행을 위한 고정된 형식을 열거하지 않고도 몇 가지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의문을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Hirshman과 Holbrook,1992)으로, 이는 고정된 관계를 밝히기보다는 비구조화된 모형으로 맥락 안에서 상호관계의 의미와 해석을 찾아가는데 적합하다.

Locker(1993)는 질적 양적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정보가 말이나 숫자의 문제라고 하였다. 양적 방법은 정보를 주로 숫자로, 질적 방법은 말의 형태로 기록한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정의하는 양식의 산물 이므로 사람들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부여한 의미는 인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되어진다. 질적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참여관찰이나 심층 면접법 등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로써 이용되므로 연구자는 편취되지 말고 훈련과 객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찰이나 정보수집결과 귀납법적 정보분석에 의해 연구자 스스로가 얼마나 연구에 몰두하여 뚜렷한 주제를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된다. 이미 인류학의 민족지적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이용되어 왔고, 사회학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 연구(Holt, 1995, Thompson, 1997) 그리고 의류학 분야(정인희, 1998,

민동원, 1999)에서도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접법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면접대상자

면접대상자는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했던 시기가 2년이상 지나지 않은 한국여성으로 목적표집 방법에 의해 표집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999년 6월에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경험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적어도 미국에서 사계절을 지내며 미국인들의 다양한 의복 문화를 경험한 한국인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면접대상자는 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면접자들과 안면이 있는 자들을 목적표집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수는 연구자가 결론 도출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대상자들의 연령은 20대 여성이 네 명, 30대는 여덟 명, 40대가 네 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출생 및

성장하였으며, 중류층의 생활수준을 갖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다. 미국에서 거주한 장소는 중소도시이거나 대도시이며 지역은 동부, 중부, 서부로 다양하였다. <표 1>에는 참가자들의 이름(가명)과 연령, 거주경험장소, 직업, 현거주지역을 제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1998년 미국 Madison시에서 한국인 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하였으며, 나머지 11명은 1999년, 한국에서 거주하는 8명의 여성들과 한국을 일시 방문한 3인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훈련된 면접자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 3. 면접 내용

면접에 앞서 면접대상자에게 면접의 목적을 알리고, 녹음의 양해를 구한 후 나이, 직업, 한국과 미국의 거주지역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주제에 관한 질문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혹은 거주 경험 후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의복이나 유행에 대해 특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의 개방형 질문으로 시

<표 1> 면접대상자 프로필

성 명	연 령	미국 거주경험장소(거주기간)	직 업(현거주지)
도민지	25	Austin (2)	대학원생(미국)
민종인	25	Chicago (2)	대학원생(미국)
이윤아	25	Savanna (3)	대학원생(미국)
조혜진	25	N. Y. city (2)	그래픽디자이너(한국)
이윤선	30	Grandayle (4)	주부(한국)
강문신	32	Knoxville (2), New Jersey (5)	주부(한국)
김재순	32	Cleveland (3), New Jersey(6)	주부(한국)
오경문	33	Philadelphia(2), Madison (3)	주부(한국)
이경미	33	Washington D. C.(5)	주부(한국)
이진아	33	N. Y. (5)	화랑 경영(한국)
전희선	35	Madison (10)	주부(미국)
김문주	35	New Jersey (2)	주부(한국)
이정일	40	Madison (7), Austin(3)	주부(미국)
김영미	40	Austin (1), Silicon Valley(2)	주부(한국)
김현지	44	Austin (2) Madison (2)	주부(미국)
김태영	45	Madison(10), Chicago (7)	간호사(미국)

작하고, 주제와 논점을 구체화시킨 질문을 가지고 면접자가 질문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면접지침법을 따랐다. 가능한 실제 경험한 것을 말하도록 하였다.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45분에서 2시간 사이다.

#### 4. 분석과정

면접과정에서 녹음한 면접내용은 면접자와 연구 보조자가 소리나는 대로 문자로 옮겨 적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접근함에 있어 객관성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앞설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삼각추화(triangulation)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자료 연구자 이론의 측면에서 적용된다. 자료를 시간공간 사람을 다양하게 수집하는 자료삼각추화, 단일연구자가 아닌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자 삼각추화 등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일 연구자보다는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자 삼각추화(Investigator 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연구자와 한 명의 의류전문가를 포함한 세 명의 전문가에 의해 분석이 실행되었다.

내용분석은 Spiggle(1994)의 내용분류(categorization)-추상화(abstraction)-비교(comparison)-범주화(dimensionalization)-종합(integration)-반복(iteration)-반증(refutation) 과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문자화된 면접자료는 면접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반복해서 그리고, 부분에서 전체의 방향으로 읽도록 하였다.

Spiggle(1994)의 내용분석 방법에 의해 각자 자료를 분석한 후 내용의 범주화와 상호작용의 결과를 비교 논의하여 세 명이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를 분석결과로 채택하였다.

### IV. 분석 결과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의복행동에 대한 면접내용

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해 양국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의상이나 외모와 같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비윤리적으로 여겨 말하기를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고, 의상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옷을 좋아하는 여성과 옷에 관심이 적은 여성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분석된 내용들이 모든 참여자들의 일치된 내용은 아니나 반복되어 언급된 내용들이며 분석자들의 합의된 결과이다. 첫째는 유행현상, 두 번째는 착용자의 의복 태도, 세 번째는 의복행동에서의 평가기준과 착용스타일이다.

#### 1. 유행 현상

##### 1) 유행

유행은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사회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심 메커니즘(Blumer, 1969)으로 그 사회가 갖는 사회변동의 속도에 따라 유행현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과 사회변동을 겪은 국가라고 볼 때, 유행도 빠른 사회 변동과 함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태영, 강문신 등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유행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동의한다. 유행이 없다고 까지 한다. 이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 경험이 있는 면접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국사람은 의복, 신발, 심지어 가전제품 등에서도 유행에 따라 새것을 구매하는 경향이며, 그러한 변화가 쉽게 눈에 띄어나 미국인들로부터는 그러한 변화를 쉽게 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영: 유행이 없었어요. 저는 여지껏 오면서 한국에는 유행, 신발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유행이다 그러면 금방 바꾸잖아요. 근데 그런걸 못 느꼈어요. ...옷은 자주 갈아입지만 유행에 따라 입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도민지: 미국에 와서는 유행이란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가끔은 왜 우리나라는 패션에 이렇게 민감할까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꾸미는 것은 기본 좋은 일이고...

반면에 한국은 유행이 뚜렷하고 미국에 비해 유행변화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민지의 '우리나라는 패션에 이렇게 민감할까 짜증날 때...' 하는 언급은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행변화를 따른다는 것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정서적 생활을 가능케함으로 만족감을 주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유행변화의 인위성이나 너무 자주 변화해야 하는데서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 2) 유행변화속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의복의 유행주기가 짧아 유행 변화속도도 빠르다고 본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새로 생겨나는 상표의 수와 사라지는 상표가 많으며, 상표뿐 아니라 의복스타일이나 색상에 있어서도 변화를 많이 느낀다. 또한 한 점포의 상품구성에 있어서도 유행을 따르는 디자인의 상품이 많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스타일이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유선의 언급에서 보듯이 한국은 유행하는 스타일 위주의 상품생산이 대부분이므로 특정 스타일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들이 찾는 다양한 스타일이 항상 점포에 진열되고 있으며, 스타일의 변화도 급격하지 않고, 인기있는 상표의 수명도 한국에 비해 길다.

이유선: ...한국은 청바지도 유행에 따라서 나팔바지 입고 딱 붙는 바지 입고 통바지도 입고... 그러나 옛날에 입던 밀워 길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청바지를 찾아볼 수 없어 불편해. 그러나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 미국도 유행이 없는 건 아냐... 특별히 지금 막 이 때에 유행이다 그런 게 없어 옷이 흐름이 다 비슷하고 신상품이 나와도 다 옛날에 있던 거랑 뭐 하나만 바뀌서 신상품이 나오지 완전 확 틀려서 확 바뀌어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의 옷을 세일해도 지금 있는 옷이랑 거의 비슷해 지금 새로 나온 신상품이랑 비슷한데 어디가 하나, 뭐 소매 길이 틀리다던가

## 3) 유행적용범위

미국과 한국의 차이로 언급한 것 중 유행을 즐기

는 연령대의 차이이다. 미국에서는 유행을 좇는 연령이 10대에 제한된다. 10대들은 화장도 하고 유행에 민감하나 20대의 미국 여대생은 대부분이 외모보다는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느라 외모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3-40대 미국 여성들은 유행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며 개성에 따라 서로 다른 스타일을 선호하고 착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은 10대에서 20대의 여성들이 획일적인 의복으로 유행을 이끌어 가며, 3-40대 여성들도 20대의 유행스타일을 따르므로 뒷모습으로 나이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정도이다.

도민지: 10대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선 패션이 존재하고 유행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잘 모르겠어... 내가 있는 곳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거의 다 편하게 집에서의 차림이나 학교에서의 차림이나 별 다를 게 없거든. 민종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되면 많이 멋을 내잖아. 근데 거기서 틀린 게 중고등학교 때에는 멋을 많이 내고 화장도 그때 많이 하고 대학교 때 되어서는 화장도 거의 안 한데 그러니까 평범하게 공부하고 그런다는 게 그게 많이 틀리고... 조혜진: 미국에서 유행은 10대들한테만 있어... 비슷한 복장을 하고 다닌다거나 신발을 굽이 이렇게 높은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그건 10대들한테만 그렇지 딱 고 또래를 빼고는 유행은 찾아보기 힘들어... 우리 나라는 10대랑 20대가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하듯이 20대랑 30대가 비슷하고 30대랑 40대가 비슷하고 왜 뒷모습 보면은 20대 같애 앞에서 보면 아줌마라고 그러잖아.

## 4) 의복의 획일적 동조와 개성

한국여성들은 남이 옷을 하나 사면, 그 옷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옷이 좋아보이면 같은 스타일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타인을 의식하고 동조하는 현상은 한국여성들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도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를 강하게 의식하여 남에게 인정받고 수용되는 의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해석된다. 즉 타인의 평가나 사회의 규제를 강하게 의식하는 것은 자기보다는 집단의 의견을 우선 생각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강문신: 미국의 의생활은 저희와 너무 다르다고 가서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자들이 무엇을 하나 사면은 그 옷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동조에 의한 획일적인 스타일의 유행은 한국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한국에서의 프라다백의 유행, 탈렌트의 스카프를 따른다든가 하는 예이며 실제로 유치원 자모회에서 한 멋쟁이 학부모가 좋을 걸 입었다 하면 나머지 학부모들도 따라가는 예이다. 한국여성들은 옷을 잘 입기 위해 친지나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따르는 반면에 미국인들로부터 관찰된 것은 유행에 따르기 보다 스타일을 찾아 자신의 개성 즉 남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강문신: 자기네들은 한국인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프라다백이 유행이면 백화점에 프라다 백을 다 메고 나오고, 벨트가 유행이면 똑같은 구찌 벨트를 다 메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 명이 하려는 유행을 너무 쫓아 간다는 소릴 종종 들었어... 한국에서... 학교 유치원 엄마들을 보더라도 누가 한 명 좋은 옷을 입었다 하면은 그 옷 풍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멋쟁이 여자가 될 하나 신었다든지 음... 옷을 좋은 걸 입었다 하면... 이윤아: 우리나라는 전부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연예인들의 유행 같은 것, 전부 비슷비슷해서...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느 텔러트의 것을 많이 따라 가잖아 그러니까 유행이 생기고 그러는 거 같아... 미국에선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뭘 했다 그래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없어 ... 미국가서 보니까 미국인들은 너무나 개성이 뚜렷했고, 컨츄리 스타일이면 컨츄리 스타일, 모던한 스타일이면 모던한 스타일...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온 것 같아요...

## 2. 의복에 대한 태도

### 1) 자기위주 ·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대부분의 면접참가자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르며 편안하게 느낀 것이 있다. 미국인들은 우선 타인의 외모나 행동에 신경을 쓰거나 의식하지 않으며, 행동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도민지나 강문신의 언급에서처럼 미국인들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별로 옷에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입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의 외모나 행동에도 관대하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이 배꼽티나 노출이 심한 것을 입어도 쳐다보거나 의식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한국인들로부터 경험된 것은 미국인들에 비해 타인의 외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동시에 자신의 외모에 있어서도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므로 타인의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고 착용한다.

이윤아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의복스타일과 미국에서의 스타일의 차이를 말하였다. 그녀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남을 의식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개인이지만 문화권이 달라짐에 따라 의복행동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선호스타일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범, 타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 보인다. 이는 미국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사고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그만큼 상대방의 사고나 행동을 인정해 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기인된다고 본다.

도민지: 대부분의 중산층 미국인들은 별로 옷에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입는 것 같아 ...남들을 신경 써서 의식해서 옷을 입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처럼 그게 안돼.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 신경을 쓰게 되지... 압구정동 갈 때는 그래도 신경 쓰고 가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쁘게 하고 오니까 나도 신경 써야 할 거 같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 신경을 쓰게 되지... 미국 사람들은 아줌마들도 어쩍 저런 심한 옷을 입었을까 하는 생각 해 본 적이 없어. 배가 나왔는데 배꼽티를 입어도 그냥 그게 자유분방해 보이고, 강문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딱 의생활은 내가 느끼기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입는 것 같애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냥 자기가 편하게 그런 식으로 입는 거 같애. 이윤아: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음 다른 사람이 보는 눈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옷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앞전해 보인다가나 정신 나간 애 같다가나 야하게 보인다가나 그런 부분의 옷은 사지 않았던 거 같은데 미국 가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내가 좋은 거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많고...

## 2) 경쟁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문화

면접 참여자들에 의하면 한국여성들은 남을 의식하고 남을 평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경쟁심리가 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낮게 평가하려고 한다. 이윤아나 김현지에 의하면 자신보다 잘 입었다고 생각하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하하고 자신보다 못 입었으면 자신보다 못하다고 비하하는, 즉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보이며 상대방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없으면 질투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조혜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옷차림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거나 차림이 좋지 않아도 겉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는 배려를 보임으로써 친절하고 관대함을 느끼게 한다. 의복을 상대방이 잘 입고 못 입는 것과 상관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개성있는 차림에는 칭찬할 수 있으며, 의복을 부적절하게 입었다 해도 상대방에게 내색 않는 태도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며, 규범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 의상과 헤어스타일, 말씨에 대한 규범들이 한국보다는 느슨한 점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Hofstede, 1995)

이윤아: 남을 의식하고 남을 평가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시하고 그런 만큼 남을 많이 배려해 주지. 옷을 통해서 사람의 부를 판단할 수는 있는데 한국보다는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 김현지: 우리나라는 너무 잘 입어도 좀 아니꼽게 생각하고, 좀 후지게 입으면 속으로 흉을 보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색상 매치를 잘 했다

던지, 아니면 '이 옷 정말 멋있는데, 어디서 샀니?' 하면서 진심으로 칭찬을 해 주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못 입거나 이상하게 입거나 하는 것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던지 하는 것 같아요. 조혜진: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보다 칭찬도 많고... 한국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인 거 같구.

## 3. 의복행동의 차이

다음은 의복행동에 있어 한국인의 상표를 통한 과시적 소비행동과 미국인의 실용위주의 소비행동이다.

### 1) 한국인의 상표지향적 의복선택

상표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기호이다. 상표가 주는 이미지는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상표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다 (이은영, 1993). 강문신과 오경문의 언급을 보면,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거나 자신의 의복을 구입할 경우에 우선 상표를 고려한다. 이는 상표의 유명도나 가격에 따라 형성된 상품의 서열이 바로 그 상품을 소유하는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류상표의 상징성에 의한 소비지출은 자신의 수입에 기초한 지출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에 의해 뒤지지 않으려는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자신의 지위보다 더 낮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상표를 선택하는 과시적 소비행동을 보인다. 상표는 그 상표의 상품이 갖는 가격, 유행성, 세련됨과 구매자의 전문직에 의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그로인한 복합적인 상표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긴다(김현선, 1997).

미국과 한국 여대생의 의복 구매평가의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경우는 사적 자아의의식이 높은 여대생의 경우도 미국과 달리 특정상표가 주는 지위상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와 Leslie, 1993).

이 결과로 미루어 한국 여대생은 내적 사고에 대한 관심과 상관없이 의복과 같이 가시적인, 외형적인 것, 의복 상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본다. 이러한 상표지향적 행동은 남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나 부 혹은 사회적 지위를 실제 이상으로 평가받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흔히 '최고'나 '최대' 혹은 '일류'를 선호하는 소비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상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명상표 구매능력과 유명상표가 갖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부나 미적 감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상표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소비는 과시적 소비로 나타나며, 또 다른 한국인의 소비 특성으로 신분의 유지상승을 위한 체면과 허세에서 나오는 체면소비와도 관련된다(성영신, 1994).

강문신: 미국인들은 싼 옷도 스타일이나 자신한테 맞는 옷을 구입하고 가격을 상관 안 하고 누가 비싼 옷을 입었던지 싼 옷을 입었던지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딱 보면 시장 옷인지 아주 비싼 브랜드인지 한국에서는 너무나 확연히 알 수 있어서 한국인의 의생활에 대해서는 약간 사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윤신: 우리나라는 보통 고가를 입어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옷의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특이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가는데...

## 2) 미국인의 실용주의적 의복 소비

### (1) 미국인의 밉크코트와 운동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림으로 미국거주경험자들에게 특히 기억되었던 것은 오경문이 말한 직장 출퇴근 시 정장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한 차림과 김재순이 언급한 밉크코트에 운동화를 착용한 차림이다:

오경문: 특히 직장 다닐 때도 직장에서는 구두를 신지만 직장까지 가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차를 운전할 때는 양말신고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직장에서 구두로 갈아 신고 다시 밖으로 걸어다닐 때는 운동화에 양말 신는 모습... 김재순: 시카고에 놀러 갔었는데 ...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사실 우리 나라는 밉크 코트를 입고 어딜 나가며는 일단

차리고 나가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봤었을 때는 밉크 코트에다가 운동화를 신은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우스워 보였는데 미국에 오래 살면서 그게 미국 사람의 사고 방식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밉크 코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입었고 거기에 힐은 좀 불편 하나까

밉크코트란 보온성보다는 밉크코트의 가격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밉크코트나 정장 슈트차림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차려 입은 상태이므로 운동화를 함께 착용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여성들이 직장에 가는 도중에 정장이나 밉크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직장에서는 구두를 갈아 신는 것은 하이힐로 인한 보행과 발의 피곤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국인들의 의복문화에 있어 자신의 건강과 편안함을 우선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단지 편안함을 위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사고 행동하는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된다.

### (2) 실용적인 의복 행동

이진아와 오경문의 언급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옷이나 오래된 신발도 잘 관리하여 신는 검소함을 보이며, 특이하게 보인 것은 Garage Sale로 쓰던 물건도 잘 정리해서 다시 팔고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도 구매하여 쓰는 문화를 보인다:

이진아: 미국에서는 한번 썼던 것도 깨끗이 세탁해서 팔고,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새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고... 어떤 부잣집에서 garage sale을 한다는 광고가 났는데, 줄을 서서 3시간이나 기다려서 들어간 일도 있어요.

오경문: 백인들은 10년 20년 된 것도 그대로 입고 오래된 것도 그냥 입는데요, 세탁소 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남자들 팬티, 셔츠(짧은 남자 내의)는 고무줄을 새로 끼어 입을 정도...

김문주의 언급에서처럼 미국인들은 같은 아이템의 의복을 여러 벌, 신발을 여러 켤레 소지하며 번

갈아 착용한다는 것이다. 한번 입은 옷은 이를 계속 입지 않고, 매일 갈아입는다.

김문주: 옷을 사도 한 두 장사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사오고 나오잖아. 많이 씌 사지. 그런 게 옷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랑은 또 좀 다르게...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도 자주 갈아입고... 오경문: 한가지 느낀 것은 매일 갈아 입힌다는 것, 오늘 입은 것은 다시 안 입혀요.

### (3) 미국인의 드레스 코드

대부분의 중류계층의 미국인들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을 보였다. 이는 미국인들이 남을 평가하는데 있어 단정함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Kaiser, 1995).

이경미 등의 언급에서처럼, 바지에 벨트 착용, 벨트, 신발, 옷의 색상 조화, 제질의 적절한 조화, 신발과 옷의 조화 등이 지켜지고 있으며, 새 것이 아니라도 항상 깨끗하게 착용한다. 착용 방법에 있어서도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는 등의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이경미: 미국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벨트랑 구두를 웬만하면 같은 색깔로 맞추고 운동화나 구두를 깨끗하게 착용한다는 점, 우리나라는 바지 위에 티셔츠를 내놓는다거나... 그게 저는 가장 한국사람들이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구두라도 그거를 정리정돈을 잘 해 가지고 다시 신는다... 한국 아줌마들은 좀 자기자신을 흐트러트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옷차림... 조혜진: 미국사람들은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차림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고지식하고 틀에 박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셔츠의 단추는 다 잠가야 되고 어떤 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옷에는 어떤 넥타이를 매야되고 하는 식의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 같다.

### (4) 캐주얼과 정장 스타일

이윤선 등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장이 필요한 외출복과 캐주얼 차림의 일상복의 구분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난다. 미국인들은 정장이 요구되는 상황에만 정장을 착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서는, 대부분 청바지나 반바지에 티셔츠, 운동화의 편안한 차림을 선호하고 즐기는 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은 정장과 일상복의 구분이 뚜렷하나 한국인들은 외출복과 일상복의 의복 구분이 그들과 비교하여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장 출근 시는 대부분 정장의 차림을 하지만, 일상복이 더 적합한 여대생의 통학복이나 주부들의 동네에서의 차림에서 자켓을 걸치는 등 정장 분위기의 차림을 한다:

이윤선: 미국인들은 평상시에 입는 옷과 그리고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 때 입을 옷을 정확히 구분해서 입고... 한국 사람들은 정장 스타일을 생활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입는 옷도 대학생 같지 않고 약간 정장 분위기 나는 옷들이 많구요. 보통 동네를 다니는 주부들의 옷도 생활복이라기 보다는 좀 정장에 가까운 옷들을 선호해서 입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직장 출근 시에도 캐주얼한 차림을 많이 한다. 도민지, 이윤아의 언급에서 보면, 미국에서 학교 교사와 사무직원들, 나이 든 남자들의 캐주얼한 복장이 한국에서와 다른 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교사나 직장인들이 정장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형성된 관계가 수직적이므로 딱딱한 정장 차림에서윗사람의 주는 위엄과 엄격함, 권위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직장에서의 캐주얼한 차림과 학교 교사의 청바지 착용이나 화려한 색의 문양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미국인들이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직원, 연령에 따른 관계에 있어 한국에서의 상하 수직관계나 권위의식과는 달리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민지: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때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참 이상했던 게 40대 중반의 남자 선생님께서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있는 거였다. 이윤아: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들은 청바지에 티셔츠 여자들도 그런 바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입었고 학교에 선생님이나 사무직원, 그런 사람들도 거의 다 청바지 입고 많이 나오고...

V. 요약 및 결론

한국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에 의한 가치요소가 혼재된 시점에서, 의복행동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넘치는 의복소비현상과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여 유행상품과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과시적 소비 현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왔고 인적교류가 많은 미국을 준거틀로 하여 미국인들의 의복행동과 한국 여성의 의복행동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의복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해 양국에서 관찰된 의복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 후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결과는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의 의복행동의 특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유행현상, 착용자의 의복 태도, 그리고 의복행동에서의 평가기준과 착용스타일 측

면으로 정리되었다. 이와같이 의복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문화적 요인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경향, 유교문화, 실용주의문화를 제시하였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동조성과 개성, 권위의식과 평등의식, 그리고 경쟁의식과 칭찬, 배려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에서는 유행 변화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과 달리, 획일적인 의복 착용 현상과 시간에 따라 유행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10대에서부터 중년 여성들까지 모두 유사한 스타일의 의복 즉 유행을 따르는 현상을 보이며, 의류점포에서는 시즌에 따라 유행 상품 위주로 공급되어 유행이 아닌 스타일의 의복은 쉽게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행현상에 관한 측면이다.

(1) 미국은 유행변화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유행변화가 뚜렷하고 유행변화 속

<표 2> 한국과 미국에서의 의복행동의 특징과 그 원인 요약

변 인	국 가	한 국	미 국	의복행동차이의 원인
유행현상	유행	유행현상 뚜렷함	유행현상 한국에 비해 뚜렷하지 않음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빠른 사회 변동으로 유행 변화 가속화
	유행변화 속도	유행 변화 속도 상대적으로 빠름	유행 변화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유행확산 범위	10-40대의 유행 추종	10대 위주의 유행 추종	한국의 가치관이나 규범의 혼란으로 연령대에 맞는 가치관 조성이 미흡함
	동조성과 개성	획일적 유행현상이 두드러짐	획일적 유행보다 개성있는 스타일 연출이 중시됨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한국인의 동조 압력
의복태도	자기위주/타인 위주 의복착용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
	경쟁의식	의복이 경쟁의식의 원인으로 평가	의복에 대한 칭찬문화, 배려의식 관찰됨	경쟁의식, 한국의 높은 불확실성회피 경향
평가기준 및 의복스타일	추구혜택 및 평가기준단서	과시적 의복 소비 의복의 상징성추구 상표지향성 중시	실용적 의복 소비 의복의 실용성추구 청결함, 단정함 중시	유교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에 의한 서열성의식, 체면의식 물질주의성향으로 인한 외적인 것의 중시
	일상복 스타일	일상복으로 정장위주의 차림이 관찰되는 경우 많음	일상복으로 캐주얼 위주의 차림이 일반적임	

도가 빠르게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은 10대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유행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10대에서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들이 모두 유행을 따르는 현상을 보였고 특히 한국의 20대 이상의 여성들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유사한 스타일을 따른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이와같은 빠른 유행변화의 원인은 급작스런 경제성장때문에 산업화 과정과 사회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업에 의한 새로운 재화의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화의 수요를 야기하고 소비를 자극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백경미 등, 1992), 패션마케터들의 상품 공급과 소비 현상은 유행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본다. 또한 의복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과정에서 소비대상의 물질로 전락하여 값비싼 옷이나 유행하는 옷이 경제적 수준을 과시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체면의식과 동조압력에 기인한다고 본다(Asseal, 1984, 나은영, 1995). 따라서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소비행태의 변화와 함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을 겪고 있다고 본다(현택수, 1996).

(2) 한국여성들이 의복행동에 있어 추구하는 스타일은 남들이 입는 스타일 즉 남들이 인정해주는 스타일을 중시한다. 친구나 연예인들의 의상을 동조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서 관찰된 것은 '유행에 따른다'에 앞서 '자기 나름의 개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컨트리 스타일, 모던한 스타일, 심지어는 유행이 지난 핑크스타일 등의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스타일의 연출이다. 이는 한국이 집단주의사회로 집단의 동조 압력이 큰 반면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즉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인주의 사회라는 점에 원인을 둘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지나친 외형적인 의복동조는 자신의 내면적인 중요함을 잃게 하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낭비나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타인을 의식하여 맹목적으로 타인의 의복스타일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자기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스타일 즉 개성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은

자아정체감의 발견과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의복에 대한 태도 측면이다.

(1) 한국여성들은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는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자기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다. 아직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한국국민은 '나'라는 감정보다 '우리들'이라는 감정이 우선하므로 외부의 눈이나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들'속에서 이탈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동조압력을 더 느낀다(김대환, 1979). 따라서 한국여성들이 타인의 의복에 민감하며, 자신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자신에 앞서 타인의 평가, 즉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강하게 의식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밝힌 연구결과(이철, 1998)에서 한국인들이 집단주의와 체면 의식에 편승하여 자기자신의 평가보다 주위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더욱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아직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한국국민은 '나'라는 감정보다 '우리들'이라는 감정이 우선하므로 외부의 눈이나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들'속에서 이탈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여 동조압력을 더 느끼기 때문이라 해석된다(김대환, 1979). 반면에 자기과 비자기는 아주 엄격히 구분되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각자의 일인칭적인 생활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전제에서 상호적응하는 성격을 가진다(Hofstede, 1995). 따라서 상대방의 생활기준을 철저히 인정하므로 상대방의 신체나 의복 등 외모에 대한 사적인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한 자기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므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원하는 대로 표출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독특한 스타일을 자유로이 연출한다고 본다.

(2) 한국여성들은 의복을 통한 경쟁의식이 강하다. 더구나 타인과 자신의 비교 시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경쟁심리가 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낮게 평가하려고 경향이다. 이는 한국이 정치, 사

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변동이 큰 불확실성회피경향이 강한 국가로 새로운 사회적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는 점과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규범을 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의 결과라 해석된다. 반면에 미국인들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진심으로 칭찬해주거나 차림이 좋지 않아도 겉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는 배려를 보이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개인주의 성향과 안정된 사회에서 오는 규범에 대한 해석의 폭이 크고 더구나 다민족 국가에서 외모에 관계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교육받아 온 데 기인한다고 본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특징은 이미 유교의 특성으로 전통문화이나 외래문화의 다른 가치에 가리워진 부분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할 부분이다.

셋째, 의복행동에서의 평가기준과 착용스타일 측면이다.

한국여성들은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같이 남들이 인정하는 상표의 유명도나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은 Kim 등(1982)과 Lee와 Leslie(1993)에 의해 한국 이민자나 한국인들은 백인들보다 상표선호경향이 강하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 여성들은 의복이 갖는 실용적인 생활도구라기보다는 옷이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성에 더 중요성을 둔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자신의 부나 사회적 지위, 또는 심미적 감각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과거 유교문화의 불평등에 의한 서열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권위의식에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과거 신분사회와 달리 많은 재산을 획득한 사람들은 부를 미덕으로 삼고(송준향, 1993, 이의자, 1992), 새로 얻은 부에 의한 지위를 타인에게 과시하여 존경을 얻고자하는 결과로, 서열성에 따른 권위의식은 전통 문화가 갖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가치 측면이다.

미국인들에게서 한국에서와 달리 특이하게 관찰된 의복행동은 의복이 갖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행동이다. 외출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뚜렷하여 일상복으로는 간편한 바지와 셔츠 그리고 운동화의 캐주얼한

얼한 아이템 위주로 옷을 착용하는 것,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직장 출퇴근 시에 정장에 운동화 차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의 철학으로 볼 수 있는 실용주의적 발상과 타인보다는 자기 위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주의사회를 앞두고 의복의 청결성과 단정함, 상황적 적합성 등의 실용적인 기능을 표현적 기능에 앞서 고려해야 하며, 절약과 재 활용, 관리의 효율성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복문화를 우선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면접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출생, 성장한 중류계층의 여성으로 미국의 다양한 계층을 접하지 못하였고 한국인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생활하였으므로 미국인들의 정확한 감정이나 가치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결과는 면접을 통한 질적 방법에 의한 총체적인 의복 행동 연구로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양적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 김은실(1997). 여성의 건강관리와 육체이미지의 소비문화. 문옥표 편,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pp. 275-3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현선(1997). 현대 한국사회의 '과시적 소비'에 관한 연구-차이와 기호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식(2000). 의복과 문화적 접근: 질적 연구방법의 중요성. *한국의류학회지*, 24(4), 510-520.
- 나은영(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문옥표(1997). '전통'의 생산과 소비: 한복을 중심으로. 문옥표 편,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pp. 9-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동원(1999).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관하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우미(1999). 신체 만족도에 따른 선호스타일 의복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 성영신(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69-82.
- 송준향(1993). 국민학생의 물질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보행, 김우창, 라이저지프, 존하임, 신일철, 노재봉 (1986). *미국인의 생활과 실용주의*. 서울: 민음사.
- 이은영(1992). *패션 마케팅*. 서울: 교문사.
- 이의자(1992). TV광고가 물질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14.
- 이철(1988). 소비자행동 모델의 문화적 한계와 소비자 행동 연구의 발전 방향. *소비자학 연구*, 9(1), 1-15.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전양진(1999).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의 관계 연구-한국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리뷰학회지*, 23(8), 1131-1138.
- 정미실(1991).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재호(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나남.
- 채정숙(1999). 라이프 스타일의 비교문화적 연구-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0(4), 79-98.
- 태혜숙(1997).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증명.
- 한성열, 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13-129.
- 현택수(1996). *옷과 유행*. 일상문화연구회 편, *한국인의 일상문화* (pp. 223-246). 서울: 한울.
- Blumer, H. (1981). Fashion: From class differentiation to collective selection. In G. B. Sproles(Ed.), *Perspective of fashion* (pp. 49-58).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 Evance, Martin, & Jim, Blythe (1994). Fashion: A new paradigm of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8, 229-237.
- Flugel, J. 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 Hirshman, Elizabeth C., & Morris B. Holbrook (1992). *Postmodern consumer research-The study of consumption as text*. SAGE Publication, Newbury Park.
- Hofstede, G., 차재호, 나은영 역 (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olt, Douglas B. (1995). How consumers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1).
- Hui, H. C.,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Kaiser, Susan B.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 Kim, M. J., & Schrank, H. L. Fashion leadership: A two cultural study- Part 1: Fashion leadership among Korean college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3), 227-234.
- Lee, M., & Leslie D. B. (1993).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urchase criteria of Korean and United States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32-40.
- Leung, K., & Bond, M. H. (1985).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 Roach, M. E., & Eicher, J. B.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 Locker, S. (1983). Dress and the dynamics of culture: Implications for theory, methods and content. In Lenno, S. J., & Burns, L. D.(Eds.), *Social science aspects of dress: New directions* (pp.



- 146-152). ITAA Special Publication #5.
- Steinback, S., & Steinback, W., 김병하 역(1997).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특수교육.
- Thompson, Craig J. (1997). Speaking of fashion: Consumers' use of fashion discourses and the appropriation of countervailing cultural meaning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 15-42.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